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시	2021. 3. 29(월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주택정책과	담당 자	• 과장 장우철, 사무관 홍승희, 주무관 남일 • ☎ (044) 201-4129, 3329
보 도 일 시		2021년 3월 30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3.29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주택 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, 매주 이행현황을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

국토부, 3월 31일부터 “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” 운영... 주택정책 관련 국민과의 소통 확대 기대

- 국토교통부(장관 변창흠)는 매주 국민께 주택 공급대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 3월 31일부터 7월로 예정되어 있는 첫 예정지구 지정 시까지 매주 수요일 “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”을 운영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브리핑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제외하면 정책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운영되는 정례브리핑으로, 정부가 그간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국민께 정확히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된다.
- 앞으로 매주 개최되는 브리핑에서는 핵심 당국자가 그 주의 주택 공급대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한다.
- 이외에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택정책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함께 설명할 계획으로, 정례 브리핑이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소통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.

- 3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는 1차 브리핑에서는 「공공주도 3080+ 대책」 발표 이후의 추진현황과 첫 결과물인 1차 도심 사업 후보지를 공개한다.
- 이어 4월부터 이어질 추가적인 도심사업 후보지 공개, 2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, 주거재생활성지구 선정결과 발표 등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루어질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을 통해 주택 공급 시 불법·불공정행위는 근절될 것”이라면서,
 - “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주택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기존에 발표했던 주택 공급대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 - 또한 “매주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 성과도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주택정책과 관련한 국민 의견에도 귀 기울여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홍승희 사무관(☎ 044-201-4129),
 남일 주무관(☎ 044-201-332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